

지역 매아리

전북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완주군, 3개 마을 전원 수상

김제, 시민 소통 만남의 날 운영

민선7기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박준배 김제시장이 시민과 소통하는 만남의 날을 매주 월요일을 지정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12명 내외 시민의 불편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민원실 내 만남의 장소를 운영 고충민원외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해결사 역할에 나섰다.

금주 7월10일 화요일 첫 번째로 시민과 만남을 운영 서압동 위드아파트 거주하는 양영숙씨의 김제시예술품을 위한 활성화 방안 외 4건에 대해서 박준배시장이 직접 참석 민원인 중심의 상담과 처리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민원해결에 적극 앞장섰다.

처음으로 민원상담을 한 민원인은 김제시민의 불편과 고충을 위해 시장이 직접 참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 시민의 권익을 보호 하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항상 내 가족처럼 섬기는 민선7기 자리매김 할 것 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산 창포·운주 고산촌 최우수상

완주군이 전북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휩쓸었다.

완주군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북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지난 6일 열린 '제5회 전북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참가한 마을 모두가 수상하는 성적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완주군은 3개 참가마을 중 2개 마을이 최우수상을 거머쥐면서 명실공히 마을공동체 우수지역으로 인정 받았다.

콘테스트에는 소득·체험분야에 고산면 창포마을, 경관·환경 분야에 운주면 고산촌마을, 아름다운 농촌만들

기 캠페인분야에 용진읍 순지마을 등 3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이중 고산 창포마을(위원장 노재석)과 운주 고산촌마을(위원장 이기열)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고산 창포마을은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개발한 15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월평균 마을 방문객이 2000명이 넘는 지역이다. 콘테스트에서는 완주군의 마을만들기 단계별 육성정책을 통해 전국 최대 민경강 달빛축제, 다듬이할머니 공연단 운영 등 마을활력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주목받았다.

운주 고산촌마을은 대둔산 정상이

보이고 마을 뒤로는 천등산이 자리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한 산촌마을로 주민 23가구 중 11가구가 귀농·귀촌인이다. 원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시(詩)를 쓰고 장승 및 솟대를 만들고 폐가전제품을 활용해 냉장고 도시관을 설치하는 등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용진읍 순지마을(위원장 민성필)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분야에서 2위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순지마을은 매년 마을 자체적으로 순지마을 이야기 축제를 개최해 마을의 발전된 모습과 주민생활상을 담은 영상제와 마을 사진전으로 마을공동체가 꾸준히 노력하는 마을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 2010년부터 주민과 함께한 완주군의 마을사업이 양적성장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까지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을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확인했다"며 "완주군의 공동체 협력 정책이 주민 소득 증대뿐만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까지 강화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5회 생생마을 콘테스트'에는 전북 총 253개 마을이 인터넛으로 참가신청을 했으며, 서면심사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선정된 12개 마을이 출전했다. 이를 통해 전국대회인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출전대표마을을 선정한 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GUN포차축제' 성황

다문화 음식·한국음식문화 교류

완주군에서 다문화 음식문화와 한국음식이 함께 어우러졌다.

완주군은 2018년 농림부 농촌축제 지원사업 선정으로 지난 7일 완주군청 잔디광장에서 완주-GUN 포차축제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돼 서로의 음식문화를 공유했다.

베트남 대표음식인 반호이, 자넬에 대해 결혼이주여성 디티투씨가 음식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박선영 한국조리기능장이 이와 유사한 한국음식 구절편을 선보이며 다르면서도 같은 음식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베트남 자조모임이 전통춤 공연을 선보이고, 로컬푸드

다문화취급 클래스, 노래자랑과 율동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 명랑운동회, 놀이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다문화가족이 주체가 돼 음식판매 등을 해왔다면 이날은 다문화가족간 아이들과 부모들이 소통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컸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에서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며 자존감이 높고 지금보다 더 우리 문화에 익숙해져서 다문화가족 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2의 고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의 주축이 되어 농촌 활력화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10개국 509명이 생활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행락지 위생안전 예방 활동

완주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여름철 행락지 위생안전 및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완주, 동상계곡을 비롯한 피서객들이 주로 찾는 6개 면지역 자연발생유원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취사 등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하고 공중화장실 위생상태 확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과 주민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위생과 직원 20여명으로 기동상황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하며 차량을 이용 행락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이장회의와 상인간담회, 유원지 주변 현수막 거치와 마을방송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주민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난 6일 열린 제5회 전북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참가한 마을 모두가 수상하는 성적을 거뒀다.



독서문화캠프-리틀북포레스트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금구면 두월노을마을에서 열렸다.

전대식 김제시 부시장, 시정 현안 파악 행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갖고 공약사항 등 논의

지난 6일 새로 부임한 전대식 김제시 부시장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직접 주재하며 본격적인 시정현안 파악에 나섰다.

국소장 및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중점·현안사업의 진행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상호간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 후 전대식 부시장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지평선 축제 등 하반기 예정된 사업들의 철저한 중간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공모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안 및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고정된 관념을 과감히 탈피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도 주문했다.

전대식 부시장은 "새로운 민선7기의 희망찬 출발을 김제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제도약과 정의로운 김제시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매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금구 두월노을마을 청춘 안식처 각광

포트럭파티, 저자특강, 독서캠프 등 문화프로그램 유치

농촌의 작은 마을이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일상에 지친 청년들의 안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일상을 비우고 싶은 청년들을 위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김제시 금구면 두월노을마을에서 2박3일 실시된 2018 독서문화캠프-리틀북포레스트는 전주의 청년문화기획사 우에게에서 기획 진행했다.

마을에 위치한 작은 초등학교인 청운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작가 초청 북콘서트를 진행했다. 캠프에 참가한 60여명의 청년들은 농촌마을 주민들을 통해 배우고 자연에서 쉬며 힐링한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개의 원민대표는 "두월노을마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서 청년들이 쉬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리틀북포레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2018 독서문화캠프 리틀북포레스트는 13~15일 한차례 더 두월노을마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테홍 스포츠 아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카약 ATV / 버기카

스키/보드 펜션/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지력중 휘트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지력 휘트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력중 휘트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테홍 스포츠 아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휘트	